

민주, 나정숙 광주 서구의장 제명키로 지방의회 독립성 훼손 논란

黨 “타당과 손잡은 당선은 문제”

나 의장 “당 내정자 없었다” 반발

민주당은 2일 타당 소속 의원들과 연대, 의장이 된 나정숙 광주 서구의회 의장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당의 조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지방정치의 중앙 연속성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영암군의회 원 구성 과정도 문제가 크다고 보고 조만간 징계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나정숙 광주 서구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 문제를 최종 논의한 결과, 나 의장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구의원들과 연대해 의장직을 차지한 점을 인정, 윤리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제명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오는 10일 중앙위원회에서 인준 받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나정숙 의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시킨 장본인들은 다른 의원들”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 의장은 특히 “의장 선출과 관련 당론을 정한 적이 없는데도 당론 위반으로 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3일 중앙당의 결정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혀 파문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중앙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나 의원이 타당 의원들과 연대해 의장직을 차지한 것은 당원으로서의 자

격을 상실한 행위”라며 “마음은 아프지만 당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일벌백계 의미로 제명이라는 강경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의 조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의 중앙 정치 연속성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의장직은 의원들간의 경쟁력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지만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 나눠먹기 식으로 선정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나 의장이 타당 의원들간의 연대해 의장직에 당선된 것은 일견 당을 배신한 것 처럼 보이지만 타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

을 만큼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조치는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암군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중앙당이 최종 인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6명은 나 의원이 당초 민주당 소속인 김 모 의원을 의장으로 뽑기로 한 당론을 어기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6명과 연대, 의장직을 차지했다며 중앙당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로 힘모아 무역 1조달러 달성합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일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기 위해 무역협회를 방문, 이희범 회장 등 간부들과 손을 맞잡고 포스트를 취하고 있다.

/연남뉴스

‘동서화합 전도사’ 법무장관 될까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 후임 강력 거론

‘동서화합의 전도사’로 불리는 임내현(54) 열린우리당 법률구조위원장이 전장배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강력 거론되면서 법무부장관 인선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최근 노대통령에게 임 위원장을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총장을 후임 법무부장관 후보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장관에 이어 또 한번 호남출신 법무부 장관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출신 임 위원장은 지난 1979년 검사로 입관한 뒤 공직생활 대부분을 ‘동서화합’과 ‘노사화합’에 열정을 쏟아왔다.

與, 대통령에 후보로 건의

특히 ‘동서화합’을 위한 그의 꾸준한 행보는 호남과 영남인들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그는 검사 생활 20년만인 지난 1998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으로 부임, 처음으로 고향 전라도에서 근무하며 ‘고향사랑’은 물론 ‘동서화합’에 앞장섰다.

당시 그는 순천과 진주·남원·거창 등 4개 지역이 함께 한 ‘제1회 영·호남 화합 자연보호 범죄예방 실천결의대회’를 주최해 전국 34

개 지역의 범죄예방위원회와 간담회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금은 영·호남지역 검찰 범죄예방협의회가 각각 자매결연을 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는 지난 2003년 광주고검장 재직시절 동·서화합과 경북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경상북도 산하 10개 단체장 명의로 감사패를 받았다.

경북 10개 단체장 감사패

경북지역 단체장들은 이 감사패에 ▲경주 세계 EXPO 성공 유치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 개최 ▲산업평화 정착 유도 ▲동서화합에 기여한 임 위원장의 공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임 위원장은 지난 2003년 경북고 동문회에서 경북고 1호 명예 동문회원으로 선정돼 지금도 경북고 축제를 비롯한 각종 주요 행사에 초대돼 ‘동서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대구 고검장 시절인 2004년 2월에는 경북지역에서 가장 큰 구미공단에서 노사화합 선언을 이끌어 낸 데 큰 기여를 해 지역민들로부터



임내현 전 광주고검장

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0년 감사장으로 승진, 광주고검 차장 검사로 근무하면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산업평화 정착에도 심혈

작업장 1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평화를 강조하는 특강을 실시하는 등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쳤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임 위원장은 광주고검장 재직시 검찰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혔고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등 검찰 고위 간부로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높이 평가하며 “신임 법무부장관을 맡아도 거뜬히 자신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기풍향계

장성군수 당선무효 소청 종료

○유두석 장성군수의 당직 보유 문제로 제기됐던 장성군수 선거 및 당선무효 소청이 종료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고 이병직 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장성군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이 소청인의 사망에 따라 지난달 24일자로 종료됐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소청 종료 사유가 선거법에 명기돼 있지는 않지만 소청인이 사망하거나 소청을 제기한 정당이 해산한 경우 소청이 종료된다는 관례에 따라 소청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이병직 후보는 지난 6월 15일 “무소속 유두석 후보가 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었던

만름 후보 등록과 당선이 무효”라며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지역 기초의회 회기일수 늘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회기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광주·전남 상당수 기초의회가 회기 일수를 늘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광양시의회는 최근 회기 일수는 당초 80일에서 120일로 늘렸고, 함평군의회도 90일 이내로 결정했다. 무안군의회는 110일 이내로 늘리기로 했고, 곡성군의회도 회기 일수를 100일로 확정할 계획이다.

지방의회가 당초 기초의회 80일, 광역의회 120일로 정해져 있는 회기 일수를 이처럼 늘리는 이유는 올해부터 실시된 지방의원 유급화에 맞춰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광주 북구의회,

화순군의회 등도 다른 지방의회의 실정 등을 감안해 회기 일수를 늘리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노, ‘광산구 조례안’ 비판

○민노당 소속 광주 광산구의원 4명은 지난 1일 광산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등 광산구 행정조직 개편안과 관련 성명을 내고 “공무원 자리 늘리기와 대규모 승진 잔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민노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며 “하지만 민노당 의원들은 조례안이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병준 부총리 사의 잘한 일”

임채정 국회의장

임채정 국회의장(사진)은 2일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사의표명을 한 것은 잘한 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 광주를 방문한 임 국회의장은 이날 시내 음식점에서 광주 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면 부총리로서 업무수행에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등과의 합당 등 정계개편 질문에 대해 “정치는 생활인 만큼 정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합당 등 여러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정계개편 가능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임 의장은 또 광주 문화수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지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이 통과되도록 국회의장으로 힘껏 돌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찬에는 열린우리당 김태홍·유신호·양형일·지병문·강기정 의원, 민주당 최인기 의원 등이 배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해중 골프 외유’ 與 진상조사키로

열린우리당은 2일 인천지역 당 소속 국회의원 4명이 지난달 중순께 태국으로 골프 외유를 다녀와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인천 지역 의원 4명이 외유중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송하고, 윤리위에 진상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이호웅 안영근 신학용 한광원 의원 등은 지난달 12일~17일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하는 길에 현지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농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 없습니다.

이도키

신발탈착기, 토양분무기, 연료분무기, 원유분무기, 농작물분무기

0621-363-4800

한아상공

소프탈착기, 고성능분무기, 분무기, 분무기, 수입농기계, 비료분무기, 분무기, 분무기, 분무기

新 전기만 사용하는 태양초 고추건조기

20년 경험과 뛰어난 기술로 탄생한 최고의 유일건조기

유일건조기 특징

1. 태양초 고추 건조를 위한 최적의 온도(50~60도)를 유지하여 건조율을 높여줍니다.

2. 태양초 고추 건조를 위한 최적의 온도(50~60도)를 유지하여 건조율을 높여줍니다.

3. 태양초 고추 건조를 위한 최적의 온도(50~60도)를 유지하여 건조율을 높여줍니다.

4. 태양초 고추 건조를 위한 최적의 온도(50~60도)를 유지하여 건조율을 높여줍니다.

건조기 구매할 만장일치입니다. 유일건조기 고추 건조는 건조를 잘 건조합니다.

전국대리점모집 : 출시 기념 특가 판매

주유일

문의: 061-322-3321 팩스: 061-322-4280

판매처: 061-322-3321 팩스: 061-322-4280